

원주시, 겨울철 자연재난

‘대설·한파’ 총력 대응

원주시는 다가오는 겨울철 ‘인명보호 최우선’을 목표로 현장 중심의 사전 대비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대응 계획을 마련해 대설·한파 피해 예방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겨울철 기온과 강수량이 11월과 1월에는 평년과 비슷하고 12월은 평년보다 다소 낮고 적을 것으로 전망되나,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극심한 한파와 폭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현장 중심의 철저한 대비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원주시는 본격적인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 시작에 앞서, 지난 4일 시청 7층 회의실에서 ‘2025-2026 겨울철 대설·한파 대책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김문기 부시장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원주시 재난부서를 비롯해 36사단, 원주경찰서, 원주소방서, 시설관리공단 등 관계기관과 지역자율방재단 등 민간단체에서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겨울철 재난 대응 대책을 점검하고, 기관·단체 간 협조 체계와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원주시는 대설에 대비해 적설 취약 구조물 19개소, 도로 통행금지 2개소, 도로 결빙 취약 구간 28개소, 농·축·수산 시설 등 재해 취약 시설을 사전에 점검하며 위험 요소 제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강릉시, 2025년 사회복지대회

및 어울림 한마당 개최

강릉시(시장 김홍규)는 5일(수) 강남체육관에서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사회복지공무원·시민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강릉시사회복지대회 및 어울림마당」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제26회 사회복지의 날(매년 9월7일)을 기념하여 시민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복지 발전을 위해 애쓴 사회복지 종사자 및 시민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1, 2부로 나누어 진행되며, 1부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은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및 단체 27명에게 유공 표창이 수여되고, 2부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지역복지에 헌신하는 민·관 사회복지인이 함께 참여하는 체육활동이 이뤄진다. 이 날은 평소 다른 영역으로 나뉘어 있던 민간과 행정의 복지부문이 하나로 화합하고 소통하는 특별한 자리가 마련된다. 강릉시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민·관 통합 사회복지 활동의 저변을 넓히고, 지역복지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정책과 사업이 현장 참여와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갈 계획이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복지의 최일선에서 파듯한 손길과 헌신으로 지역의 복지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사회복지종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며 “이번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통해 지역 내 사회복지인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자긍심을 높이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강릉시에서도 제일행복도시 강릉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 여름철 수상안전 사망 사고 큰폭 감소

지역 맞춤형 여름철 수상안전 종합대책 추진으로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올해 여름철 도내 하천·계곡과 해수욕장을 찾은 방문객이 코로나19 이후, 역대 최대였음에도 수상안전 사망 사고가 전년 15건 대비 33% 감소한 10건으로 큰폭으로 감소하였다고 발표했다.

특히, 하천·계곡 물놀이 구역으로 지정 운영되는 423개 구역과 해수욕장 개장기간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운영되는 86개소 해수욕장에서의 안전사고는 “도 최초로 사망 사고가 발생되지 않은 한해로 기록”되었다고, 행정안전부 “물놀이 안전사고 심사 위원회”로부터 심의결과를 10.30일 최종 통보받았다.

올해 여름철 평균기온은 25.7℃로 지난해25.6℃보다 0.1℃ 높아 역대 최고였으며, 6월부터 시작된 더위는 9월 초까지 지속되어 열대야 일수도 최다인 한해를 기록하였고, 여름철 해수면 방문객들도 '24년 대비

11.3% 증가한 코로나 19 이후 최다를 기록하였음에도, 우리 도는 체계적인 수상안전 관리대책 추진과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 협업으로 안전사고가 줄었으며, 특히, 전국 32% 이상 최다 하천·계곡 물놀이 관리구역 지정운영과 청정 동해안을 보유한 우리 도는 폭염 등 긴 무더위로 인해 도내 하천, 계곡, 해수욕장 등 도내 물놀이 명소를 방문한 국내외 관광객이 크게 증가 하였음에도 사망 안전사고가 감소한 것은, 수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역 맞춤형 '2025년 여름철 수상안전 종합대책'을 수립 운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2025년 여름철 수상안전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으로 사전대비 기간(5.1~5.30) 중 물놀이 관리지역 423개소 사전점검, 안전표지판 등 노후시설 교체, 구명조끼 무료대여소 확대, 예·경보시설 2346개소 점검, 물놀이 안전요원 교육을 실시하였고, 늦더위

가 9월까지 이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대책기간을 전년보다 1개월 연장한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간을 물놀이 안전 사고 대책기간으로 설정하여 주요 하천, 계곡, 해수욕장에 안전요원 1,338명(내수면 675, 해수면 663명)을 배치 운영하였으며 시군별 마을 예·경보 시설을 적극 활용한 안전사고 예방 홍보방송을 실시하였다.

또한, 7월 15일부터 8월 17일까지 성수기 기간을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여 도내 주요 물놀이 관광지 및 시설에 대하여 특별 점검반을 편성, 주말을 활용하여 17개 시·군과 함께 주요 물놀이 지역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 홍보 및 물놀이 안전점검 활동을 집중 전개하였다.

한편, 금년도 수상안전 운영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 사고 10건 중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비관리 수변지역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점에 착안하여 내년도 비관리 수변지역 점검 강화를 위한 안전관리요원 운영지원 예산 및 시군 전담공무원 지정 책임운영제를 확대하여 더욱 강화된 수상안전사고 감소대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여중협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올해 길고 긴 여름더위에도 불구하고 도 및 시군, 해양경찰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체계적인 수상안전대책 추진으로 안전사고 감소와 물놀이 구역 사망자 제로의 첫해를 기록할 수 있었다”며, “내년도에도 도내 여름철 물놀이 명소를 찾아주시는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안전한 물놀이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제14회 동해시 선도농업인대회 개최

동해시는 2025년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여 오는 11월 11일(화) 오전 9시, 동해체육관에서제14회 동해시선도농업인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에는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 등 4개 학습단체와 18개 품목연구회 회원 및 가족, 지역기관·단체 임직원 등 약 8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는 농업인 단체들의 화합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동해시 농업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농업 행정 서비스 홍보에도 나선다. 현장에서는 임대농업기계 전시관 운영, 농산물 가공품 시음, 우리 쌀 소비 촉진 떡 나누기 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한 동해농협 주부대학 사물놀이,

봉정마을 난타 공연, 레크리에이션 및 초청가수 공연 등 즐길 거리가 풍성하게 마련되어, 참가자 모두가 함께 어울리며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 농업 발전에 공로가 큰 우수회원들에게 명예대회장 공로패(5명), 대회추진위원장 표창패(7명), 중앙 및 도 학습단체 회장상(8명)을 시상하여, 회원들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도모한다.

동해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제14회 동해시선도농업인대회가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회원간 정보 교류와 자긍심을 높이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속초종합경기장 수소충전소 신축 ‘순항’



속초시 관내 두 번째 수소충전소가 될 ‘속초종합경기장 수소충전소’의 공정이 원활히 진행되는 가운데, 이병선 속초시장이 5일 건설 현장을 직접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속초종합경기장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은 승용차와 버스를 모두 충전할 수 있는 특수형 수소충전소 1개소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4년 8월부터 2026년 3월까지 20개월간 추진된다. 완공 시 시간당 승용차는 12~18대, 버스는 4대까지 충전이 가능하다.

총사업비 68억 원(국비 42억 원, 도

비 9억 원, 시비 17억 원)이 투입되며, 강원테크노파크가 구축을,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맡는다.

시는 지난 3월 수소충전설비 납품사와 계약을 완료하고 공중별 시공업체를 선정했다.

8월에는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이어 10월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 검토 및 고압가스 제조·판매 허가를 받는 등 주요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왔다. 속초시는 2026년 2월까지 충전설비 설치와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 및 시운전을 거쳐 2026년 3월 중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병선 시장은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친환경 교통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수소충전 환경을 조성해 속초가 동해안권 수소경제의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춘천시 그린바이오 국제심포지엄… 바이오 대전환 서막

6일 춘천ICT벤처센터, 국내외 대학·연구기관 참여

기술교류·공동연구 협력 논의, 국제 네트워크 강화

강원바이오엑스포와 맞물려 춘천에서 그린바이오 관련 기술, 연구를 공유하는 장이 마련된다.

춘천시(시장 육동한)는 6일 춘천 ICT벤처센터에서 ‘2025 그린바이오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심포지엄은 그린바이오산업 기술 교류 및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를 목적으로 최선연구동향을 발표하고 연구협력 네트워크 강화 세션으로 진행된다.

심포지엄은 7~9일 불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강원바이오엑스포’의 사전 행사 격으로 춘천 바이오산업 대전환

비전을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서막이기도 하다.

시는 이 자리에서 △특용작물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원료 개발 △농식품 고부가가치 연구 △한국형 햅프 추출 성분 함량 활성 분석 등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일본 홋카이도대, 춘천도대, 중국 양저우대 등 해외 연사들이 참가해 일본과 중국의 그린바이오 산업 동향과 국제 공동연구 전략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은 심포지엄과 병행해 한중, 한일 공동연구 협

력 회의 및 해외 연사 시설 투어를 열고 참가자 간 실질적 협력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앞서 춘천시는 지난 2020년부터 국내 뿐 아니라 중국, 베트남 등 석화 및 연구기관과 공동 연구 및 그린바이오 산업화 추진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래 주요 먹거리인 천연물 소재를 확보해 지역 기업들이 제품화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이번 심포지엄이 국내외 연구자와 기업 간 활발한 기술 교류와 공동연구 협력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춘천시는 앞으로도 지역의 고부가가치 신성장 동력으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산지에서 바로 담그는 김장! 평창고랭지김장축제

평창의 대표 가을 축제인 제8회 평창고랭지김장축제가 오는 11월 5일부터 17일까지 12일간 진부면 오대천축제장 일원에서 열린다. 해마다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지역 특산물인 고랭지 배추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있다.

평창고랭지김장축제는 작년 10일간의 축제 기간 약 4만 명이 방문해 절임배추 190톤이 소비되는 등 평창 고랭지 배추의 맛과 품질을 체험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지역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축제에서 사용되는 절임 배추는 전량 평창에서 생산된 고랭지 배추로 김장이 쉽게 무르지 않고 아삭한 식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배추 김장 체험 10kg에 68,000원, 알타리 김장 체험 7kg에 70,000원이며 프리

미엄 배추 김장 체험 10kg은 78,000원이다. 프리미엄 배추 김장 체험은 올해 처음 선보이는 체험으로 해양심층수 소금을 이용해 절인 배추를 사용한다.

김장 체험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직접 김장을 버무려 바로 가져갈 수 있다. 또한, 서울에서 KTX를 이용하여 방문한 참가자들의 무거운 짐을 덜기 위해 현장에서 택배 발송도 가능하여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도시에서는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김장 문화와 함께 평창 고랭지 배추의 우수성을 직접 체험하며 가족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들 기회”라며 “올해도 많은 분들이 방문해 따뜻한 겨울 김장 문화를 즐기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민석 기자

아침밥이 보약! 아침부터 활약!

아침밥의 힘은 몸이 먼저 알기에
농협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